



한준희 33세

- I) 원활한 '소통'으로 이루어진 업무가 가능한 퍼블리셔
- II) '타임라인'을 준수하는 퍼블리셔
- III) 상황에 맞는 '맥락적' 업무 소화를 하는 퍼블리셔

T. 010-3278-2063

M. bassistjune@gmail.com

A. 서울 관악구 청림 3바길 7-4, 202호

B. https://www.instagram.com/june_eeeeeeeeee/

학력

2008. 03 입학 ~ 4학년 1학기 수료 후 휴학 중
(현재 제적상태이나 추후 졸업가능)
호서 대학교 실용음악과 베이스 전공

2008.03
서야고등학교 졸업

경력

2015~2018
주니퍼 실용음악학원 외 프리랜서 베이스 기타 강사

- 베이스기타 취미, 입시반 강사
- 어쿠스틱 기타 입문반
-

2017~2019
할리스 서울대입구역점, 강남 탐앤탐스 바리스타 직원 근무

- 음료제조 및 서비스 응대

2008~ 2014

다이소, 롯데리아, 정미소 등 다양한 서비스, 생산직 아르바이트 경험

2018 ~ 2020

CJ 오쇼핑 단역 모델, 드라마 단역, 공익광고모델, 유튜브 캐스터 등 촬영

AK프라자 모바일 쇼호스트

제네시스 프리랜서 차량 큐레이터 근무

볼보(정직원) 차량 큐레이터 근무

수료 내역

- 이원석 쇼호스트 아카데미 수료
 - 주테크 쇼호스트 아카데미 수료
 - 신촌 더조은컴퓨터학원 UI/UX 과정 수료
-

자기소개서

중학교 2학년때, 메모장과 나모 웹에디터를 통해 처음 코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html 자체에서 하나하나 속성 값을 적어야 했고, 한 페이지도 여러파일로 나누어 작업하는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그때는 즐거움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 때 만들어진 페이지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만든 완성품이었을 겁니다.

그 뒤론 코딩을 잠시 잊고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통해 시야를 좀 더 넓히게 되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코딩 발자취를 다시 남기려 합니다.

1) 원활한 소통을 하는 한준희 입니다

차량 큐레이터를 하게 되었던 계기는, '말을 잘 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추천을 받게 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나의 아는 점을 설명하는 것 보다, 상대의 니즈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씩 전시 차량의 단점만 꼽아서 맘에 안내키신다는 표현

을 하는 고객님들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적절한 차량 지식 또는 화법으로서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구분짓는 실수도 하였지만, 이후부터 고객님의 말씀 중 정확한 부분등은 참고하여 보고를 올리고, 잘 듣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 처음에 비판을 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해당 차량을 궁금해 하시며, 물론 나중에는 좋은 차라며 이벤트 참여나 딜러사와 연계를 시켜드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처음에 쩡그리면서 시작된 대화도, 잘 경청하며 적절히 웃으며 끝내는 소통으로 마무리 하는 업무 자세로 장점을 더욱 살리겠습니다.

II) 타임라인을 준수하는 한준희 입니다.

대학교 1학년때, 학내연주를 부탁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곡들이 제 스타일과는 정 반대였고, 곡의 난이도가 높아 연주를 거절하고 싶었으나, 도전을 해보고 싶어 매일 밤낮으로 연습실을 개인방처럼 사용하며 하루 3~4시간도 못 자는 상태로 음 하나하나를 카피하여 연습하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베이스를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 하드락 계통 연주를 잘 한다는 평이 있었는데, 그때 재즈 곡을 연주한 뒤론, 재즈톤을 잘 만드는 베이시스트라는 평을 받고, 재즈 연주를 많이 하고 타임라인을 지키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직 부족하고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도 타임라인 내에서 끈기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II) 맥락적 업무를 중시하는 한준희 입니다.

한번은 교내 정규연주회 일정으로 전임교수님과 학생들간의 의견 충돌이 생겨 같은 학년의 친구들은 목요일을, 교수님은 토요일을 서로 고집하시며 학과장교수님의 뜻에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고 토요일 일정으로 변경될 상황이었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께서 주말에 공연을 보러 오시기에 제한이 되

어 학생들과 뜻이 같았고, 이를 타파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부학과장 교수님을 비롯 전임 교수님 3분께 현 상황에 대해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다수결로써 학생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에 동의를 얻고, 제가 직접 같은 학년 학생들을 모아 뜻을 나누었습니다.

소수 대표 인원들을 모아 학과장 교수님께 방문하여 목요일로 공연을 해야하는 다섯가지 이유와, 개개인의 사유등을 말씀드리고, 독단적 행동이 아님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결국 공연은 목요일로 정해졌고, 개인적으로 학과장 교수님을 찾아뵈어 감사함을 많이 표현하며, 관계를 잘 케어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변화되어도, 흐름에 맞는 운영으로 업무를 소화하며 서로에게 이익이되는 적극적인 협업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